



오징어게임 시즌1의 한 장면.

베일 벗는 오징어 게임 2



지난해 넷플릭스서 신드롬 두번째 시즌 총복 세트장 공개
지난 7월부터 촬영 한창 구체적 공개 시기는 미정

“새로운 게임,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펼쳐질 더욱 깊어진 이야기와 메시지를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황동혁 감독)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 세트장 일부를 국내의 취재진에게 공개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황동혁 감독은 최근 충청도 모처 ‘오징어 게임’ 시즌2 세트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속에 지난 7월부터 시즌2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며 “어깨가 무겁지만, 기다려주시는 만큼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사 퍼스트맨스튜디오의 김지연 대표는 “시즌2를 향한 세계적인 관심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훌륭한 작품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각오로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이 최선을 다해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경선 미술감독 역시 “많은 분의 기대감에 큰 책

임을 느낀다”며 “감독님의 비전과 주제 의식을 잘 구현하도록 미술팀 모두가 힘쓰고 있다”고 했다.
시즌1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촬영돼 세트장 공개 기회가 없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기에 접어들어 시즌2의 세트장 두 곳이 공개됐다.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황동혁 감독과 주연 이정재는 이 작품으로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오징어 게임’의 대항행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Squid Game: The Challenge)도 제작해 최근 공개했다. 이후 2주 연속으로 영어권 시리즈를 최대 시청수(Views)를 기록하며 흥행 중이다.
시즌2 제작 소식과 리얼리티 쇼 공개의 영향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을 찾는 시청자들도 늘고 있다. 시즌1은 최근 2주 연속으로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시리즈물 시청 수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시즌2는 이정재와 이병헌,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박성훈, 조유리, 위하준, 양동근, 강애심, 이다윗, 이진욱, 최승현(탑), 노재원, 원지안, 공유가 출연한다. 내년까지 촬영이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휘자 변신 이영애 ‘순항’

tvN 드라마 ‘마에스트라’ 첫방 시청률 4.2%

이영애 주연의 새 드라마 ‘마에스트라(사진)’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9시 20분 tvN이 방송한 ‘마에스트라’는 4.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 주 전까지 tvN이 같은 시간대 방송하던 ‘무인도의 디바’ 첫회 시청률(3.2%)보다 높고, 최고 시청률(9.0%)보다는 낮은 수치다.
첫 방송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지휘자인 차세음(이영애)이 ‘한강 필하모닉’(한필)이라는 국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발탁된 이후 단원들과 갈등하는 과정을 다뤘다.
세음은 첫 연습 후 한필의 악장을 최고참이자 세음의 옛 바이올린 선생님이기도 한 박재만(이정열)에서 오케스트라 내 가장 어린 신참 연주자 이루나(황보름별)로 바꾼다고 통보한다.
단원들은 세음의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통보에 반발하나 세음은 고집을 꺾지 않으며 오직 실력만을 강조하며 대립한다.
오케스트라의 갈등과 별개로 세음은 한국에 귀국한 뒤 과거를 회상하는데,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등장했다. 이처럼 첫 방송은 새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 사이 갈등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한편 의문스러운 장면으로 앞으로의 이야기에 시청자가 궁금증을 갖게 했다.
‘마에스트라’는 2018년 방송된 프랑스의 드라



마 ‘필하모닉’이 원작이다. 세음이 자신의 비밀을 감춘 채 오케스트라를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날 같은 시간대(9시 25분)에 방송한 KBS 2TV ‘고려겨란전쟁’은 시청률 8.9%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송 시간이 일부 겹치는 MBC ‘열녀박씨 계약결혼녀’(9시 50분) 역시 9.6%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를 눈앞에 뒀다. /연합뉴스

‘더 글로리’·‘피지컬:100’ AACA 수상

(▶최대 콘텐츠 시상식)

드라마·예능 최고상 쾌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와 예능 ‘피지컬:100’이 아시아 지역 시상식인 AACA(Asian Academy Creative Awards)에서 수상했다.
8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상을, ‘피지컬:100’은 최고의 예능상을 받았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송혜교 분)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서 학교폭력 주모자 박연진을 연기한 임지연은 AACA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더 글로리’는 올해 3월 파트2가 공개된 후 3일 동안 1억2446만 시간 시청돼 넷플릭스 영어·비영어 시리즈물과 영화 부문을 모두 통틀어 1위에 올랐다.
‘피지컬:100’은 가장 강력한 몸을 가진 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100명의 참가자가 벌이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한국 예능 시상 최초로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부문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으며 시즌2가 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 ‘더 글로리’

AACA는 한 해 동안 아시아 콘텐츠 시장을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아시아지역 최대 콘텐츠 시상식으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노래방 을 최고 인기곡은 ‘헤어지자 말해요’

반주기 업체 TJ미디어 차트...2위는 ‘심’·3위는 ‘사건의 지평선’

가수 박재정(사진)의 ‘헤어지자 말해요’가 올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른 곡 1위에 올랐다고 노래방 반주기 업체 TJ미디어가 8일 밝혔다.
올해 4월 발표된 ‘헤어지자 말해요’는 6월 말부터 이달 첫 주까지 23주 연속 노래방 차트 1위에 올라 ‘2023년 TJ노래방 결산 차트’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TJ노래방 결산 차트’ 2위는 DK(디센

비)의 ‘심(心)’, 3위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 각각 차지했다.
TJ미디어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TJ 노래방에서 불린 곡의 연주 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매겼다. 아이브의 ‘아이 엠(I AM)’은 10위로 댄스곡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